

사건(사)의 판(판)짓

누나, 여기 앉을래



5월은 개구리가 긴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칩(驚蟄)입니다. 성큼성큼 봄이 다가오면서 많은 이들이 입학, 결혼 등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3일 오전 광주시 동구 계림초등학교에는 노란 병아리떼의 총총 걸음이 이어졌습니다.

초롱초롱한 눈빛의 어린이들이 입학식을 갖고 능률한 초등학생이 된 것입니다.

겨우내 비어있던 1학년 교실은 아이들의 환한 미소에 이미 봄이 찾아온 듯 포근해졌습니다.

이날 입학식은 마음 급한 유치원 꼬마녀석이 학부모들의 웃음을 자아내게 했습니다. 얼마 손을 잡고 누나 입학식에 따라나선 꼬마녀석이 하루 빨리 초등학생이 되고 싶은지 누나의 자리를 차지하

고 앉아버렸습니다. 새 책가방을 메고 학교에 다니게 된 누나가 부러웠나 봅니다.

주위의 시선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의젓하게 앉아있던 꼬마 녀석은 선생님의 질문에 또박또박 대답을 하면서 신이 났습니다.

미래의 꿈나무들이 새로운 출발을 시작했습니다. 학교 가는 게 신이 난 아이의 손을 꼭 잡고 학교에 나선 부모님들은 많은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부쩍 자란 아이의 모습이 자랑스럽기도 하고, 힘든 학교 생활을 시작하는 게 안쓰럽기도 할 것입니다.

마냥 신나기만 한 아이들의 표정이 늘 한결같이 반짝반짝 빛날 수 있기를 기원해봅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I love MY student



김창균

‘장자’의 ‘소유주’ 편에 보면 곤(鯁)이라는 물고기가 변하여 된 봉(鰓)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대붕은 바람의 부피가 충분하리 때려야 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

한사발의 물에서도 갈대는 배처럼 뜨지만, 정작 그 물에서 배는 뜰 수 없는 것처럼, 하지만 대붕은 구만리 상공으로 비약하려고 온 힘을 다해서 끊임 없이 시도하고 있는 존재이다. 어느 순간 구만리

리 없이 높아 있음은 당연지사이다. 그럼에도 간혹 각박한 세태를 원망스럽게 바라보는 것은 날로 퇴색해 가는 행사의 의미에 대한 아쉬움 때문이 아닌 가 싶다.

도가 넘은 졸업식 뒤풀이에 대해 세상에서 떠들썩했다. 작년에는 폭행 졸업식이 문제더니, 올해는 알몸 졸업식이 꽤나 논란거리였다. 하지만 한때의 가슴거리로만 넘어갈 뿐, 진정한 졸업식의 의미를 돌아보는 노력은 소홀하지 않은가 생각해본다.

지난 3년간의 억압과 규제로부터의 해방을 보여주는 꺾음의 퍼포먼스로 납길 만한 일일 수도 있다. 아직 어린 친구들의 치기어린 장난이라고 치부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어디 입학식이 억압과 규제의 장으로 들어가는 무거운 운명의 굴레였던가? 새 출발을 축하하며, 희망과 포부를 펼치던 기억은 어디로 갔을까.

조선시대 500회 이상의 사신 행렬이 청나라를 오가면서도 그들을 오랑캐라고 깔보던 시기에 박지원은 달랐다.

청나라의 수도 연경(지금의 북경)보다도 ‘열하’

모든 출구는 어딘가로 들어가는 입구다

높이 올라서서 자신의 밑에 바람을 뿜 수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이를 바라보는 메추라기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뛰어서 위로 날며, 수십 길에 이르기 전에 수풀 사이에서 자유롭게 날개를 퍼덕거린다. 그것이 우리가 날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인데, 저 높음 어디로 가려고 하는지?”

여기서 대붕이 주는 철학적 메타포는 무엇일까. ‘상승과 비약’의 의지, 즉 계속된 실패와 좌절에도 굴복하지 않고 날고자 하는 의지를 관철하고자 하는 노력이 아닐까. ‘바다가 움직일’ 정도의 바람이 있어야 날 수 있다는 것은 현실적 불가능성을 담보로 한다는 역설에도 불구하고 대붕은 날기 위한 노력을 그치지 않는다.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며 대붕을 비웃는, 메추라기의 웃음을 뒤로 하면서.

2월이면 하나의 통과례처럼 거치는 졸업식도 다 지나가고, 곧 새 학기의 분주함을 준비하는 시간이다. 학교의 풍경 변화에도 우리네 세태가 예누

에 주목하며, ‘연행록’이 아닌 ‘열하일기’를 남겼다. 당시의 지식인들이 소중화(小中華)란 도그마에 찌들어 있을 때, 연암은 청나라 문명의 역동성을 열하에서 발견하고 새로운 학풍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찾았던 것이다.

마무리와 출발의 전환기에 선 우리 학생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새로운 출발의 목표를 찾아 비상의 날개를 펼치는 것이다.

주변의 이슈나 이벤트에서 한걸음 물러나, 궁극적인 목표(비전)를 찾아 에너지를 집중해 보자. 하늘을 높이 나는 대붕에 의해서만 열려 자유로운 비상을 구가하는 메추라기의 한계가 드러나는 법이다.

고(故) 정주영 회장은 살아생전에 “해보거나 했어?”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말했다고 한다. 그런 점에서 영국의 극작가 토머스 스토포드(Tom Stoppard)의 말은 더욱 극적이다. “모든 출구는 어딘가로 들어가는 입구다.(Every exit is an entry somewhere)”

<광주 북성중 교사>

리빙 센스

떡볶통 재활용하기

요즘은 물로 된 풀보다는 떡볶이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 쓰고 남은 통은 버리지 말고 비누통으로 재활용해 봅시다.

▲비누통 만들기
비누를 쓰다 보면 크기가 작아져 쓰기도 불편하고, 버리기에는 아까운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떡 비누 조각을 한데 모아주세요.

①통에 남아있는 풀을 깨끗이 씻은 뒤 물기를 완전히 말려주세요. ②통에 있는 받침을 끝까지 내려준 뒤 그 안에 비누조각을 집어넣습니다. ③비누가 통에 차면 손가락이나 연필 등으로 꼭꼭 눌러주세요. ④통이 다 찼 때까지 비누를 담은 뒤 풀통을 돌려주면 비누가 올라옵니다.

▲사용법
이렇게 만든 비누는 옷소매나 깃 부분을 손빨래 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용 비누를 담아 간편하게 휴대할 수도 있습니다.

知天命이 되는 오늘의 운세 3월 4일(음 1월 27일 癸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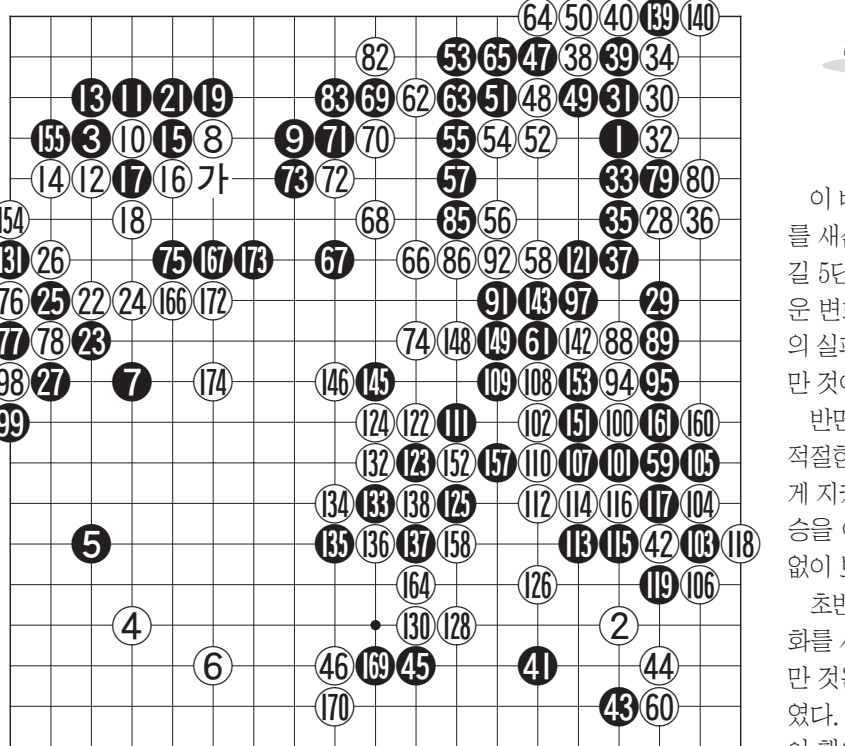
子	36년생 안이나 밖이 소란스럽다. 48년생 물고기가 물을 만나니 마냥 좋다. 60년생 주변의 변화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다. 72년생 생 부친의 건강을 살펴보고 대안을 세워라. 84년생 꾸준한 진행 되면 일이 갑자기 중단 될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08, 41
丑	37년생 어려움은 있으나 곧 해결 될 수다. 49년생 아프 만큼 성속하니 걱정은 없다. 61년생 흉다길소 손재가 발생하나 크지는 않다. 73년생 가정에서 큰소리가 외부로 번질까 걱정이다. 85년생 우연한 좋은 기회가 질사로 연결된다. 행운의 숫자: 07, 42
寅	38년생 가슴은 답답하나 길은 보인다. 50년생 미운사람이 방해하는 형상까지 겹치니 원망스럽다. 62년생 남자는 처가 여자는 남편이 일고를 담담 우러가라. 74년생 고독한 하루나 늦게 기다리는 사람이 온다. 행운의 숫자: 23, 43
卯	39년생 지척이 흔들리는 연정이 나타나니 서로 이해를. 51년생 아랫사람과 돈거래는 손재가 된다. 63년생 갑작스런 지출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대비를. 75년생 직업변동과 처가 고생할 경우가 나타날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24, 27
辰	40년생 아직은 시기상조이나 여유를 가져라. 52년생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득재 한다. 64년생 총본한 자기 확보가 필요하고 새로운 일은 절대 금해야 한다. 76년생 분수를 지켜야 길라라. 행운의 숫자: 06, 39
巳	41년생 새로운 문서에 의문이 있으니 잘 살펴보고 결정하라. 53년생 가까운 주변 사람이 교통을 주니 경계해야 한다. 65년생 노름은 쉬어라. 77년생 모든 거꾸로는 즐기고 내심을 기해야 득이 실보다 크리라. 행운의 숫자: 22, 16
午	42년생 옛 친구의 정을 잊지 말고 감사의 마음을 전해보라. 54년생 친구의 도움이 결정적이 될 것이다. 66년생 가진 것을 아껴가게 배워서 보라 그 이상이 돌아오리라. 78년생 고생은 되나 보람은 있다. 행운의 숫자: 06, 28
未	43년생 시작은 미미하나 진행은 꾸준하다. 55년생 협상의 테이블에 나아가니 당당하게 나가라. 67년생 친밀하게 다가오는 사람을 조심하라. 79년생 흑운이 바람에 날리니 새로운 영상이 뚜렷이 보인다. 행운의 숫자: 19, 31
申	44년생 의무는 소란스럽지만 마음은 편안하다. 56년생 직장과 가정에서 즐거운 일이 생긴다. 68년생 고생은 크나 결과는 불만이나 마음을 자중하라. 80년생 좋은 사람을 만나니 움직이라. 행운의 숫자: 03, 43
酉	45년생 얽힌 채 달린 일이 생길수도 있으니 조심하라. 57년생 신 체적 불량이 올 수도 있으니 자신을 살펴 볼 때. 69년생 좋은 일이 생기지만 남의 눈물로 보라. 81년생 마음편한 하루다. 행운의 숫자: 05, 40
戌	46년생 바쁜 하루지만 마음은 뿌듯하다. 58년생 시비가 다발하고 불면증에 시달리게 될 수도 있다. 70년생 승사나 구설이 생기니 이웃과 화해하면 좋으니라. 82년생 계획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확신해 보라. 행운의 숫자: 18, 32
亥	47년생 교역이 점점 소멸된다. 59년생 집안 모두가 혼란스럽고 자녀의 고동이 불어 닥친다. 71년생 순풍에 돛을 다니 매사가 순조롭다. 83년생 친인척의 불려가 나에게는 좋으나 주위에 불려라. 행운의 숫자: 15, 33

www.cafe.daum.net/sajoo114 ☎11-632-6121

운수는 나빠도 상처는 흉터없이!! DermaPlast

더마플라스트 밴드

제품구입문의: (주)원원약품 062-383-5883



광주 기우회 승리 **김현철** 철벽 수비 총보(1~174)

대항전 白 기용성 5단 (오로회) 黑 김중길 5단 (광유회)

이 바둑은 포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깨닫게 해준 한판이다. 김중길 5단은 의욕넘치는 작전으로 새로운 변화를 시도해 봤으나 결국 초반의 실패를 극복하지 못하고 패배하고 만 것이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반면 기용성 5단 빈틈없는 수비와 적절한 편치로 초반의 우세를 완벽하게 지켜내는 노련함을 보여주면서 완승을 이끌어 내 강자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다.

초반 흑 11로 뚫히면서 새로운 변화를 시도했던 김중길 5단 19로 넘고 만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소극적인 수였다. 이 수로는 무조건 '가'로 끊어야 했으며 19로 그냥 넘는 것과는 텅

이상의 차이가 있다. 흑이 초반부터 실리부족에 쫓기며 고전하게 된 것도 이곳을 끊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후 김중길 5단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 우상귀에서 32 쪽에서 막지않고 흑 31로 막는 등 갖은 변칙수를 동원해가며 역습을 노렸으나 기용성 5단 철벽수비를 뚫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 바둑은 김중길 5단 못두었다기 보다는 기용성 5단 수비와 굳히기가 더 빛난 한판이다. 백 174 수 끝. 불계승 81.87.93-흑 80. 84.90.96-78. 141. 147-138. 144.150-138.159.165, 171-162.168-156.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바둑소식

정관장배 한·중·일 세명씩 남아

각국의 여성 프로기사 5명이 연승전 방식으로 대결을 벌이는 제6회 정관장배 세계여자바둑최강전 본선 6국에서 한·중·일이 팽팽한 승부를 펼치고 있다.

3일 서울시 한국기원 대국실에서 열린 이 대회에서 중국 관웨이징 2단이 일본의 아오키 기우오 8단의 4연승을 저지하고 승리를 거뒀다.

이로써 한국 박지은·이민진·이하진, 중국 루이나이웨이·탕이·관웨이징, 일본 야시로무미코·가토게이코·만나미가나 등 국가별로 나란히 세 명씩 남았다. 이 대회 제한시간은 각 1시간에 40초, 초읽기 3회이다. 우승상금은 7천500만원. /오광복기자 kroh

<p>굿모닝 잉글리쉬 <1109></p> <p>I remember going to the movies with her 그녀하고 극장에 갔던 것을 기억합니다</p> <p>A: Do you remember Mary? B: Yah, I remember going to the movies with her. A: Was she cool? B: Yah, she was really nice.</p> <p>A: 당신, 메리 기억나요? B: 네, 그녀하고 극장에 갔던 것을 기억합니다. A: 그 여자 성격이 시원한가요? B: 예, 정말 성격 좋아요.</p> <p>* 그 난로 수리한 것, 기억합니다. = I remember fixing the stove. * 그 자동차를 세차 했던 것, 기억합니다. = I remember washing the car.</p> <p><동아 외국어학원 제공> www.donga.tv ☎ 222-6253</p>	<p>오하오우 니혼고 <1109></p> <p>齒軋(はぎしり)をして大變です 이를 갈아서 큰 일이에요</p> <p>A: 木村さん、元氣(げんき)がないですね。どうしましたか。 B: 昨夜(ゆうべ)、夫(おつと)が鼾(いびき)をかいて、寝(ね)られませんでした。 A: 大變(たいへん)でしたね。うちは、齒軋(はぎしり)をして大變です。</p> <p>A: 키무라씨, 기운이 없네요, 무슨 일 있었어요? B: 어제 밤에 남편이 코를 골아서 잘 수가 없었어요. A: 힘들었겠군요. 우리 남편은 이를 갈아서 큰 일이에요</p> <p>齒軋(はぎしり): 이를 갈다 鼾(いびき)をかく: 코를 골다</p> <p><광주 글로벌 외국어학원 제공> http://kglobal.wo.to ☎ 228-2545</p>	<p>니하오 쑹구위 <86></p> <p>您找哪位? 누구를 찾으세요?</p> <p>A: 喂, 您好。 wèi nǐ hǎo. 喂 你 好 呀</p> <p>B: 您找哪位? nǐ zhǎo nǎ wèi? 你 找 谁 呢</p> <p>A: 请问, 苏老师在吗? qǐng wèn sū lǎoshī zài jiā ma. 请 问 苏 老 师 在 吗</p> <p>B: 啊, 你好。 ā nǐ hǎo 啊 你 好 呀</p> <p>A: 苏老师呀, 안녕하세요. B: 苏老师 您好呀? A: 苏老师 您 在 吗 苏 老师 在 家 吗? B: 啊, 您好呀.</p> <p><광주중국어학원(상무지구 금호대우A) > ☎ 383-1605</p>	<p>한자 이야기 <696></p> <p>堂叔(당숙) 집 당, 아저씨 숙</p> <p>당숙(堂叔)의 당(堂)은 본래 '높을'이 쌓여 돌출 위에 세워진 집을 의미 하지만, 여기서는 조부(祖父)에서 갈린 일가(一家)라는 뜻이다. 따라서 당숙을 동당숙부(同堂叔父)라고 부르며, 조부의 형제의 자녀로 아버지와의 사촌(四寸) 형제이고, 본인과는 5촌 아저씨가 된다. 흔히 '5촌 당숙'이라고 표현한다.</p> <p>친척(親戚)은 부계(父系)의 종친(宗親)과 모계(母系)의 외척(外戚), 그리고 혼인관계로 형성되는 인척(姻戚)으로 구분한다. 친척이라고 하여도 자주 접촉하지 않는 경우, 정확한 호칭이나 지칭어를 몰라 어색하게 아저씨·아주머니, 혹은 할아버지·할머니로 부르면서 현상상황을 모면한다. 이때 대상이 부모와 같은 형렬일 때는 '아저씨·아주머니'를 사용하고, 남편과 같은 형렬이면 '아주머니'라고 부르는 것이 올바른 호칭이다. 아저씨는 본래 아제+씨(높임말)로 구성되는 사회적 용어라고 한다.</p> <p>비록 정확한 관계를 알더라도 삼촌, 사촌, 오촌, 외삼촌 등 숫자의 호칭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 이런 호칭보다는 삼촌은 '숙부', 사촌은 '종형·종제', 오촌은 '당숙부', 외삼촌은 '외숙부', 육촌은 '재종형·제'라고 부르는 것이 바람직하다.</p> <p><한여원(韓藝媛)> 조선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 230-7353</p>
--	--	--	--